

미증미소를 향하여 노동 운동

현실과 발언 10년의 발자취

현실과 발언 2 편집위원회



과학과 사상



▲ 안광홍 「위험한 놀이Ⅱ」 종이에 색연필 109.5×79.5cm 1983

▼ 안광홍 「끝없는 탈출」 종이에 색연필 109.5×79.5 1989



▲ 안광홍 「추락」 종이에 색연필 109.5×79.5cm 1989

▼ 이정운 「구석3」 캔버스에 오일 193.9×130.3cm 1982



(민정기), 미술과 현실(이태호), 근대미술의 전개와 민족의식(윤범모).

이밖에 자료편에는 월간 『마당』(1982년 2월호)에 예술가 단체의 미술편으로 소개되었던 「잃어버린 조형가치의 회복을 위하여」(유홍준)를 비롯 「미술제도의 반성과 그룹운동의 새로운 이념」(성완경) 등이 수록되었다.

1983년 〈현실과 발언〉

1983년의 〈현실과 발언〉 집행부는 이렇게 구성되었다. 회장 성완경, 총무간사 김용태, 기획간사 강요배, 회지 편집장 주재환, 〈현실과 발언〉의 간판가수 같았던 성완경의 회장추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또한 실제로 타블로라는 작품제작 같은 것은 안중에 없고 오히려 출판계와 경우에 따라서는 주계酒界에 투신하기를 즐겨했던 주격조周格調(본명 주재환), 그리고 세상에 궂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심심해서 살맛이 없을 김용태(그는 우리 시대의 돌연변이다.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 챙기는 법이 없다. 현재 민예총의 사무처장으로 민족예술운동의 숨은 교통순경직을 맡고 있다), 끈기와 저력으로 뚝쳐 제주도에서 상경하여 감히(?) 서울의 미술계를 우습게 알고 있는 강요배, 집행부는 그렇게 구성되었다. 하지만 〈현실과 발언〉 구성원 간의 끈끈한 유대감은 감투(?)에 관계없이 수시로 자리를 함께하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다(?). 아니 엄청나게 퍼 마시었다(?). 혹은 한국 미술계의 진로에 대하여 진한 토론만을 했다(?)……. 〈현실과 발언〉은…

83년도의 정기총회(2월 19일, 이화동 정림건축 회의실)에서 논의된 주요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6월 중의 정기전 개최 ②회지 『그림과 말』 제2집 발간 ③소그룹전(매체탐구의 일환)개최 ④기타 회우제도 보완 … 등이었다. 이 가운데 회지 발간은 불발탄으로 끝났고, 소그룹전은 판화전을 개최했다(한마당 화랑 83. 12). 그리고 정례 발표전은 제4회로 〈현실과 발언 동인전〉으로 인사동 관훈미술관에서 열렸다(1983. 7. 13~7. 19). 출품회원은 강요배, 김용태, 김정희, 김호득, 노원희, 민정기, 박세형, 박재동, 안창홍, 이태호, 임옥상, 정동석, 주재환, 최병민 등이었다. 제4회전은 특별한 주제를 설정하지 않고 회원 각자의 편의대로 작품을 출품케 했다. 다만 〈현실과 발언〉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듯 노장(!)들이 퇴장하고 젊은 신입회원들의 대거 참여가 특징을 이루었다. 특히 〈현실과 발언〉의 새로운 시도로서 회우會友제도의 설치가 있다. 회우란 글자 그대로 〈현실과 발언〉의 이념이나 활동상을 이해 내지 적극 후원코자하는 인사를 가리킨다. 이는 〈현실과 발언〉의 재정확보라는 실질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현실과 발언〉의 대 사회적 연대의식강화의 한 가지 방편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회우의 자격은 〈현실과 발언〉의 창립취지를 찬성하면서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으로 가능했다. 또한 회원의 숫자는 〈현실과 발언〉 회원의 2배수 이내로 했으며 회우의 연회비는 1십만원 이상으로 했다. 특히 회원 가운데 회우로서 일선에서 은퇴(?)하고자 할 때는 〈현실과 발언〉 회원의 전원 찬성을 얻어야 가능했다. 이렇게 하여 〈현실과 발언〉의 회우로서 도움을 준 인사는 다음과 같다. 최중현(건축가), 안중관(극작가), 김형철(건축가), 정지창(독일문학), 박현수(인류학) 제씨. 이같은 회우에게 〈현실과 발언〉 측이 제공하는 특전으로는 ①전시개막일의 초대 및 종합평가회의에 토론자 자격으로의 참가 ②소그룹 활동에의 참여 ③〈현실과 발언〉 회지에의 원고 집필 ④〈현실과 발언〉 발행의 도록·회지 등 기증 ⑤매년 〈현실과 발언〉 회원의 작품 1점 기증 ⑥연 1회 이상 〈현실과 발언〉 회원과 회우와의 간담회 개최 등의 항목이 있었다. 동인회의 토대를 보다 굳건히 하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했다. 그러나 회우모집 캠페인은 〈현실과 발언〉의 의욕과 같이 활발하질 못했다.

〈6·25〉와 〈한반도는 미국을 본다〉

6·25는 우리의 가슴 한복판에 생명의 증거로, 아물 수 없는 상처로, 또한 오는 날들을 올바르게 지켜나가야 할 하나의 뜻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사상 가장 가혹한 시련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민족의 삶을 그 근원에서부터 결정짓는 어떤 힘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며, 우리의 눈 앞에 현실적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하여, 충분치는 못하나 적어도 현실을 보는 하나의 시각일 수 있음을 믿고, 저희 동인들은 6·25를 주제로 한 기획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은 기억을 더듬은 체험담과 듣고 보고 읽은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얼굴도 모른 오라버니의 제삿날 이야기, 흑인 병사와 백인 병사 사이의 격투장면에 대한 어린 날의 목격담, 부산 하야리아 부대 이야기, 종군 작가였던 삼촌에 대한 이야기, 월남, 격전, 파괴, 피난, 점, 깡통…… 그러나, 그렇습니다. 미술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확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어, 나와 ‘나’ 그리고 ‘우리 서로’가 통하는 일일 것입니다.

1984년 〈현실과 발언〉 동인전 〈6·25〉의 모시는 글이다(1984. 6. 25~7. 1. 아랍미술관). 전열을 가다듬고 〈현실과 발언〉은 민족과 사회를 생각하는 주제의

전시를 추진했다. 특히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은 〈현실과 발언〉 회원끼는 간과할 수 없었던 주요 중심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회원의 대부분이 해방공간과 6·25공간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깊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갖가지의 사회적 모순은 분단상황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꼭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도 했다. 따라서 〈현실과 발언〉은 6·25라는 주제를 설정한 다음 그것의 미술적 접근과 용해를 고심해야 했다. 다섯 번 이상의 모임도 이같은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 끝없는 토론, 그리고 형상화에 관한 문제. 우선 6·25관계 도상자료의 수집작업부터 실시했다. 낮익은 것부터 그렇지 않은 것까지 많은 사진자료가 모아졌다. 이를 토대로 6·25의 본질과 또 그것의 미술적 수용문제를 검토해야 했다. 보다 실감나는 체험도 필요해졌다. 어린 시절의 회상이나 간접경험만으로는 부족했다. 동두천 답사여행은 이렇게하여 이루어졌다. 동두천. 동두천은 6·25가 종지부의 과거가 아님을 실감케 했다. 동두천행에서 확실한 전리품을 획득한 회원은 김용태였다. 그는 사진관 진열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 시대 최고의 사진작품’을 수집하는 데 성공했다. 미군병사와 양공주들의 기념사진은 이색적인 이미지를 눈물겹게 전달해 주면서 살아있는 ‘작품’으로 예비되어 있었다. 김용태는 미친 듯이 이들 동두천 기념사진을 모았다. 이들 사진은 〈현실과 발언〉 동인전의 한쪽 벽면을 화려하게 그러면서도 처참하게 장식했다(김용태의 이 대표작은 그 자신의 글과 성완경의 평을 참조바람, 「현실과 발언」 열화당 간행 수록).

〈6·25전〉의 출품회원은 「군세어라 금순아」 등의 강요배, 김건희, 김용태, 「냉장고에 시원한 것 없나」의 김정현, 「가족의 현재 그리고 과거」의 김호득, 「묘지판」의 노원희, 「한씨 연대기」의 민정기, 「포로」의 박세형, 「단장의 미아리 고개」의 박재동, 「대포」의 안창홍, 「원귀도」의 오윤, 「학살」의 이태호, 「묘소」의 임옥상, 「통일로」의 정동석, 「시신과 껴안은 손」의 최병민 등이었다. 〈6·25전〉은 당시의 시대상 등에 비추어 참신한 기획이었으나 통일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민족모순의 적극적 대처방안 등이 미흡했기 때문에 다소의 한계도 노출시킨 전람회였다. 이같은 〈6·25전〉의 한계는 1988년의 주제인 〈한반도는 미국을 본다〉라는 동인전에서 다소 극복의 모습을 보였다 (1988. 11. 25~12. 1 그림마당 민).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분단시대에 있어 미국의 위상은 무엇인가. 미국이란 나라의 실체 확인과 더불어 다소 비판적인 시각에서의 조형화 작업은 흥미를 이끈 전시였다. 특히 부대행사로 민족문제와 한미관계란 이영희 교수의 강연(1988. 11. 29)과 토론회(참석자: 정지창, 최원식, 성완경, 심광

현, 임옥상)가 있었다. 그리고 전시참여 및 구성은 강요배, 김건희, 김용태, 김정현, 노원희, 박세형, 박불뚝, 박재동, 신경호, 성완경, 안창홍, 임옥상, 주재환, 등이었다.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전시회 포스터의 성완경 글에서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을 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의 일편단심 짝사랑식의 눈먼 사랑 놀음에서 벗어나 미국을 대상화해서 보는 새로운 시각이 점차 생겨나고 있다. 이 변화의 의미는 엄청난 것이 아닐 수 없다. 신미양요 이후 한 세기가 지났고 미 점령군의 한국진주 후 거의 반세기의 세월이 지나고 있건만 우리가 미국을 제대로 본적이 있었던가, 해방군으로, 혈맹으로, 은혜로운 어버이의 나라이자 힘센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형님의 나라로 우리의 의식의 풍경 속에서 미국은 늘 자유와 풍요와 인류애의 상징이었고 우리의 국토와 경제와 인권을 지켜주는 존엄하고도 든든한 방벽으로 여겨져 왔다…….

아마도 현단계에서 이 그룹 〈현실과 발언〉이 보여줄 시각작업의 측면은 미국이라는 실재의 보다 본질적인 국면이라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할지 모른다. 본질을 정확히 검출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이 물론이다. 사회과학분야나 문학 쪽에서의 이 방면의 성과가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또 그것에 자극을 받아——미술분야의, 시각전문가의 노력이 여기에 보태져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의 하나로서 앞서 말한 우리 자신 속의 미국이라는 그 낯은 풍경이——현재적 일상의 환경 속에서건 역사의 회고적 자료 속에서건——바로 우리에게 눈으로, 관 등으로, 기억으로, 익숙해져 있는 바로 그만큼 ‘정서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시각전문가로서, 동시대의 민족사를 사는 지식인의 일원으로서 이에 관련된 자료를 일상 문화의 환경과 역사 속에서 체계적으로 채집하고 회고하고 깨뜨리고, 또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보여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 때문이다. 우리의 의식에서, 우리들 눈의 보는 방식 속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과거의 도상의 주술적 힘들이 올바로 씻어지지 않는 한, 미래의 진정한 전망도 불확실한 것으로 남을지 모른다. 이런 작업은 〈현실과 발언〉 동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각전문인의 참여를 요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6·25〉와 〈한반도는 미국을 본다〉라는 주제전은 애초의 의욕에 비하여 다소 미흡한 점도 지적되었다. 충분한 시간 부족과 그에 따른 안이한 처리방식은 전시의 의도를 충분히 살려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료 나열식의

접근이라든가 혹은 분단시대에 대한 투철하지 못한 현실인식 등이 그것이었다. 어쨌든 ‘도시’나 ‘행복’으로부터 출범한 〈현실과 발언〉은 드디어 ‘6·25’와 ‘미국’의 문제에까지 도달하는 발전의 과정을 보여 주었다.

80년대의 마감과 현실과 발언

〈현실과 발언〉의 열기는 역시 80년대의 초반에 드높았다. 기존 미술계에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외침은 그만큼 많은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의 사건이었다. 아니 시대적 조류였는지도 모른다. 〈현실과 발언〉은 살아서 꿈틀거렸고, 기왕의 제도권 미술계에서도 알게 모르게 동요가 보이기도 했다. 〈현실과 발언〉의 새로운 위상이 대두되었다. 회원중의 몇명은 벌써 미술계의 ‘스타’가 되어 개인적 분주함 속에서 나날을 보내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그만큼 초기의 열기도 식어가는 듯했다. ‘합창’으로 어느정도 주목을 끌게 되자 이제 한 차원 높여 각자 ‘독창’으로 본격화시켜야할 전환점이 도래했는지도 모른다. 몇몇 회원들은 〈현실과 발언〉의 공식모임으로부터 떠나갔고 또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왔다. 특히 〈현실과 발언〉에 이어 〈두렁〉이나 〈임술년〉같은 색깔있는 후배 그룹들이 탄생되어 활발하게 움직였다. 게다가 〈삶의 미술전〉같은 대형 전시회는 〈현실과 발언〉으로부터 촉발된 민족미술 진영의 일차 진열정비라는 측면에서도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기존 미술행태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미술운동에 참여한 젊은 작가의 수는 가히 기하급수적(?)일만큼 급속한 양적 팽창을 가져왔다. 이같은 열기는 곧 〈해방 40년 역사전〉으로 이어졌고 뒤에 〈20대의 힘전〉사건에 이어 〈민족미술협의회〉의 창립으로 그 장엄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 〈민족미술협의회〉의 선배 그룹으로 모임의 기초를 다지게한 〈현실과 발언〉은 서서히 그 활동영역을 달리하여 보다 변형된 행동반경을 구획하곤 했다.

〈현실과 발언〉의 이름으로 꾸며지던 행사는 자연히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전시장 활동 등 정례 동인전마저 80년대 후반에는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그러한 중간지점에서의 특기사항이라 한다면 출판활동에의 재인식을 들 수 있다. 우선 동인지로 『그림과 말』을 출간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여 1984년 12월에는 『현실과 발언 그림일지』를 출판했다. 이는 일반적인 다이어리 형식에 〈현실과 발언〉 회원의 작품사진을 적당히 배치하여 편집한 일지였다. 출판미술에의 또 다른 성과이기도 했다 (당시 이 그림일지의 출판기념 전시가 서울 인사동의 공창화랑에서 개최된 바 있다). 미술출판에 있어 〈현실과 발언〉의 또 다른 성과를

〈현실과 발언〉 10년 연혁

1979. 9. 25 원동석씨 등의 발의로 1980년 4월혁명 20주년 기념 전시를 조직하기 위한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동인의 결성에 대한 의견이 모아짐.
1979. 12. 6 서울시내 음식점에서 12명의 미술가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을 결의하고 그 이름을 〈**현실과 발언**〉이라고 정함. 창립발기인 12명은 원동석, 최민, 성완경, 윤범모(이상 평론가), 손장섭, 김경인, 주재환, 김정현, 오수환, 김정수, 김용태, 오윤(이상 작가).
1979. 12. 13 모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무위원 몇명을 선출하고 그룹의 창립취지문 작성작업에 들어감.
1980. 1. 5 창립취지문을 확정함.
1980. 1. 19~ 지식산업사에서 매월 정기모임을 가짐. 각 회원이 돌아가며 연구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전체 회원들간의 토론을 진행함.
1980. 1~ 이후 계속적으로 회원을 보강해 나감. 노원희, 임옥상, 심정수, 백수남, 김건희, 민정기, 신경호 등이 새로 참여하는 반면 몇몇 회원들이 탈퇴함으로써 창립전 직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회원이 확정되었다.
작가 김건희, 김용태, 김정현, 노원희, 민정기, 백수남, 손장섭, 신경호, 심정수, 오윤, 임옥상, 주재환
평론가 성완경, 원동석, 윤범모, 최민 등 16명.
1980. 10. 17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현실과 발언 창립전**〉을 개최함. 개막당일 미술회관 운영위원회측의 일방적인 대관취소로 전시가 무산됨.
1980. 11. 13 동산방화랑으로 장소를 옮겨 창립전을 다시 개최함.
~ 11. 19 출품작가는 김건희, 김용태, 김정현, 노원희, 민정기, 백수남, 성완경, 손장섭, 신경호, 심정수, 오윤, 임옥상, 주재환 등 13명.

- 1980 회원 중에 노원희가 개인전을 가짐.
- 1981 이태호, 강요배, 이청운이 새로 참여함.
1981. 1. 17 초대 집행부 구성. 회장에 성완경, 총무 김정현, 서기 윤범모.
1981. 6. 25 동덕미술관(관장 박용숙)이 주최한 〈현대미술 워크숍 기획전〉에 〈서울
~7. 8 '80〉 및 〈S.T.〉 그룹과 공동참여함. 본회를 대표해서 성완경의 「미술제도의 반성과 그룹운동의 새로운 이념」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이어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그룹의 발표양식과 그 이념」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있었다.
1981. 7. 22 롯데화랑에서 〈도시와 시각전〉(제2회 동인전)을 개최함.
~7. 27 출품작가는 강요배, 김건희, 김용태, 김정현, 노원희, 민정기, 백수남, 성완경, 손장섭, 신경호, 심정수, 오윤, 이청운, 이태호, 임옥상, 주재환 등 16명.
1981. 9. 9 광주 아카데미미술관(9. 9~9. 15)과 대구 대백문화관(9. 22~9.27)에서 동 전시를 순회개최함. 성완경의 「미술제도의 반성과 그룹운동의 새로운 이념」 강연이 있었음.
~9. 27
- 1981 회원 중에 손장섭, 심정수, 이청운, 임옥상이 개인전을 가짐.
- 1982 박재동이 새로 참여함.
1982. 10. 16 덕수미술관에서 〈행복의 모습전〉(제3회 동인전)을 개최함.
~10. 22 출품작가는 강요배, 김건희, 김용태, 김정현, 노원희, 민정기, 박재동, 신경호, 오윤, 이태호, 임옥상, 주재환 등 12명.
동인지 「그림과 말」 발간
- 1983 안창홍, 정동석, 박세형, 최병민, 김호득이 새회원으로 참여함.
동인들과 뜻을 같이하는 주위의 인사들을 회우로 모심. 이 회우에는 강홍빈, 김정철, 박현수, 신금호, 안종관, 정지창, 최종현씨 등이 참여하여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83. 7. 13 관훈미술관에서 〈제4회 동인전〉을 개최함.
~7. 19 「현재적 삶의 표현과 소통」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짐.
출품작가는 강요배, 김용태, 김정희, 김호득, 노원희, 민정기, 박세형, 박재동, 안창홍, 이태호, 임옥상, 정동석, 주재환, 최병민 등 14명.
1983. 12. 16 한마당화랑에서 〈현실과 발언 판화전〉을 개최함.
~12. 25 출품작가는 강요배, 김건희, 김용태, 김정현, 김호득, 노원희, 민정기, 박세형, 박재동, 안창홍, 오윤, 이태호, 임옥상, 정동석 등 14명.

- 1983 회원 중에 민정기가 개인전을 가짐.
1984. 6. 26 아람미술관에서 <6.25전>(제5회 동인전)을 개최함.
- ~7. 1 출품작가는 강요배, 김용태, 김정현, 김호득, 노원희, 민정기, 박세형, 박재동, 안창홍, 오윤, 이태호, 임옥상, 정동석, 최병민 등 14명.
1984. 12. 20 『현실과 발언 '85그림일지』를 발간함.
- 1984 회원 중에 임옥상이 개인전을 가짐.
1985. 7. 동인지 『현실과 발언』(열화당)을 발간함.
1985. 5~ 민족미술협회의 창립준비과정에 참여하여 두령, 서울미술공동체, 광주자유미술인회 등 그룹과 함께 열띤 논의를 벌임.
1985. 11 민족미술협회의 창립과 함께 그 소속이 되어 운영에 참여함.
- 1986 박불똥이 새회원으로 참여함.
1986. 5. 30 그림마당 민에서 <오윤 판화전>이 열리고 판화집 『칼노래』(그림마당 민)가 발간됨.
- ~6. 15
1986. 7. 5 오윤 사망. 장례식을 민족미술협회회장으로 치름.
1986. 7. 11~18 대구 맥향화랑에서 <오윤 추모전>이 개최됨.
1986. 12. 19 그림마당 민에서 <제6회 동인전>을 개최함.
- ~12. 27 「80년대 미술의 주제와 개성, 그 풍요와 빈곤의 문제」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갖음. 토론자는 김윤수, 성완경, 유홍준, 김우선 등.
- 1986 회원 중에 노원희, 민정기가 개인전을 가짐.
- 1987 회원 중에 손장섭, 김건희, 박불똥이 개인전을 가짐.
1988. 11. 25 그림마당 민에서 <한반도는 미국을 본다전>(제7회 동인전)을 개최함.
- ~12. 1 강연으로 「민족문제와 한미관계란」(이영희)과 토론회로 「한반도는 미국을 본다—문학과 미술의 시각」(정지창, 최원식, 성완경, 심광현, 임옥상)을 가짐. 출품작가는 강요배, 김건희, 김용태, 김정현, 노원희, 박불똥, 박재동, 안창홍, 임옥상, 주재환 등 10명이며 회원 외에 찬조출품이 있었음.
- 1988 회원 중에 김정현, 임옥상이 개인전을 가짐.
- 1989 회원 중에 박불똥이 개인전을 가짐.
1989. 7. 5 오윤의 3주기를 기념해서 동인들이 뜻을 모아 오윤 추모비를 제막함.
1990. 1 <현실과 발언>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동인의 활동과 그 역사적 의의를 객관적으로 조명해 보려는 취지에서 책자발간과 전시회개최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편집위원회(위원장 성완경)와 전시조직위(위원장

윤범모)를 구성함.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조달을 위해 공동작품제작위(위원장 민정기)를 구성함.

1990. 2. 9 〈현실과 발언〉 10년사(가칭) 편집위원회(위원장 성완경) 1차 모임을 가짐. 이후 10차에 걸친 편집회의를 통해 편집안을 확정함.

1990 회원 중에 임옥상이 개인전을 가짐.

1990. 9 『민중미술을 향하여—〈현실과 발언〉 10년의 발자취』 발간(과학과 사상사).

1990. 9. 28 〈현실과 발언 10년전〉 (관훈미술관, 10. 3~10. 9)과 〈현실과 발언 신작전〉 (그림마당 민 ; 9. 28~10. 11)을 개최함.

현재 회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옥상(회장), 박재동(총무), 강요배, 김건희, 김용태, 김정현, 노원희, 민정기, 박불뚝, 박세형, 성완경, 신경호, 안규철, 안창홍, 이태호, 장소현, 주재환, 최민 등 18명

「딸—나무」	유채	135×103cm	1982
주재환 「행복에 관한 명상—블라디보스톡에서」	콜라주		1982
「Happy a Royal Fine Arts and then...」	콜라주		1982

제4회 〈현실과 발언〉 동인전

1. 전시개요

전시장소: 관훈미술관

전시기간: 1983. 7.13~7.19

토론회: 「현재적 삶의 표현과 소통」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짐.

출품작가: 강요배, 김용태, 김정희, 김호득, 노원희, 민정기, 박세형, 박재동, 안창홍,
이태호, 임옥상, 정동석, 주재환, 최병민 등 14명

2. 주요 출품작가 및 작품

강요배 「장례명상도」	종이에 포스터칼라, 파스텔	700×200cm	1983
김용태 「조사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1983
김정희 「우리 아이들은」			1983
김호득 「서성임」	광목에 먹, 크레용	120×120cm	1983
「가지마라」	종이에 먹	240×120cm	1983
노원희 「손」	유채	160×130cm	1983
민정기 「벽보」(연작)	석판		1983
박세형 「풍경」	유채	112×145cm	1983
「아파트풍경」	수채		1983
박재동 「남학생」	유채	50호F	1983
「웃는 소녀」	유채	50호F	1983
「풍경」	유채	100호	1983
안창홍 「위험한 놀이」	종이에 색연필	108×78cm	1983
「화실풍경」	종이에 색연필, 콘테, 파스텔	109.5×79.5cm	1984
이태호 「여름은 여성을 더욱 성숙하게」	사진 오브제		1983

임옥상 「보리밭 ₁ 」	유채	180×120cm	1983
「밤 ₃ 」	아크릴릭	302×139cm	1983
정동석 「83 서울」	흑백사진		1983
「한강풍경」	흑백사진		1983
주재환 「신은 존재한다」	번역만화		1983
최병민 「춤추는 사람」	석고		1983

〈현실과 발언〉 판화전

1. 전시개요

전시장소: 한마당화랑

전시기간: 1983. 12.16~12.25

출품작가: 강요배, 김건희, 김용태, 김정현, 김호득, 노원희, 민정기, 박세형, 박재동, 안창홍, 오윤, 이태호, 임옥상, 정동석 등 14명.

2. 주요 출품작가 및 작품

강요배 「대동」	지판	40×60cm	1983
「유선생」	지판	40×80cm	1983
김건희 「도시의 패션」	종이에 실크스크린	80×80cm	1983
「말타기놀이」	종이에 실크스크린	80×110cm	1983
김용태 「뒷모습」	목판	46×33cm	1983
「여의도광장」	실크스크린	50×30cm	1983
박세형 「소리」	목판	32×26cm	1983
임옥상 「밥상」	종이부조, 아크릴릭	117×86×5cm	1983

그외 김정현, 김호득, 노원희, 민정기, 박재동, 안창홍, 오윤, 이태호, 정동석 등이 출품.

〈6·25전〉 제5회 동인전

1. 전시개요

전시장소: 아람미술관

전시기간: 1984. 6. 26~7. 1

출품작가: 강요배, 김용태, 김정현, 김호득, 노원희, 민정기, 박세형, 박재동, 안창홍, 오윤, 이태호, 임옥상, 정동석, 최병민 등 14명.

2. 〈6·25전〉 전시 서문

모시는 글

6·25는 우리의 가슴 한 복판에, 생명의 증거로, 아물 수 없는 상처로, 또한 오는 날들을 올바르게 지켜나가야 할 하나의 뜻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사상 가장 가혹한 시련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민족의 삶을 근원에서부터 결정짓는 어떤 힘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며, 우리의 눈 앞에 현실적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하여 충분치는 못하나 적어도 현실을 보는 하나의 시각일 수 있음을 믿고, 저희 동인들은 6·25를 주제로 한 기획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은 기억을 더듬은 체험담과 듣고 보고 읽은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오라버니의 제삿날 이야기, 흑인병사와 백인병사 사이의 격투 장면 에 대한 어린 날의 목격담, 부산 하야리아 부대 이야기, 종군작가였던 삼촌에 대한 이야기, 월남, 격전, 파괴, 피난, 검, 깡통…… 그러나,

그렇습니다. 미술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확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어, '나와 나' 그리고 '우리 서로'가 통하는 일일 것입니다. 부디 오셔서 아낌없는 조언주시기 바랍니다.

〈현실과 발언〉 일동

3. 주요 출품작가 및 작품

강요배 「어머니」

종이에 펜, 붓, 먹

100×180cm

1984

	「강냉이떡」	종이에 펜, 붓, 먹	100×180cm	1984
	「수위」	종이에 펜, 붓, 먹	100×180cm	1984
	「응변」	종이에 펜, 붓, 먹	100×180cm	1984
	「금순이」	종이에 펜, 붓, 먹	100×180cm	1984
	「굳세어라 금순아」	종이에 펜, 붓, 먹	100×180cm	1984
김용태	「동두천 사진」 동두천의 사진관에서 수집한 사진 약 300여장			1984
김정현	「냉장고에 뭐 시원한 것 없나」	아크릴릭	200×134cm	1984
	「핑크색은 식욕을 돋군다」	아크릴릭	200×134cm	1984
	「후렛쉬민트컴은 모든 것을 녹색…」	아크릴릭	200×134cm	1984
김호득	「6.25와 가족」	하드보드지에 먹, 채색	114×70cm	1984
	「공존」	하드보드지에 먹, 채색	70×114cm	1984
노원희	「묘지」	유채	330×130cm	1984
	「장승」	유채	160×130cm	1984
민정기	「한씨연대기」(연작)	동판		1984
박세형	「그날 이후」	수채	32×24	1984
	「포로」	수채		1984
	「항구」	수채		1984
박재동	「피난시절—전포동」	유채	360×135(290×120)cm	1984
	「귀향」	유채	50호F	1984
안창홍	「전쟁1—보리밭에서」	종이에 색연필, 파스텔	109.5×79.5cm	1984
	「전쟁2—숲 속에서」	종이에 색연필, 파스텔	109.5×79.5cm	1984
	「전쟁3—6.25 그리고 오늘」	종이에 색연필, 파스텔	109.5×79.5cm	1984
	「전쟁4—들판에서」	종이에 색연필, 파스텔	109.5×79.5cm	1984
오윤	「원귀도」	유채	462×69cm	1984
이태호	「거리」	혼합재료	165×150×110cm	1984
	「학살」	석고에 채색		1984
임옥상	「분단1」	유채	138×320cm	1984
	「분단2」	유채	138×180cm	1984
	「분단3」	유채	138×180cm	1984
정동석	「통일로」	흑백사진		1984
	「'77 서울」	흑백사진		1984
최병민	「죽음」	폴리코트	70×100×10cm	1984

제6회 〈현실과 발언〉 동인전

1. 전시개요

전시장소: 그림마당 민

전시기간: 1986. 12. 19~12. 27

토 론 회: 「80년대 미술의 주제와 개성, 그 풍요와 빈곤의 문제」

(김윤수, 성완경, 유홍준, 김우선 외)

출품작가: 강요배, 김건희, 김정현, 노원희, 민정기, 박불똥, 박세형, 박재동, 신경호, 안규철, 안창호, 임옥상 등 12명

2. 제6회 〈현실과 발언〉 동인전 전시서문

제6회 전시회를 열면서

80년대의 새로운 미술운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제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술이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은 미술인들에게 확산되고 뿌리를 내린 것은, 지난 70년대에 비교할 때 커다란 변화이자 이 운동의 큰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울러 창작의 측면에만 국한했던 작가의식이 미술의 수용맥락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매체의 도입으로 확장된 점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80년대의 종반을 바라보는 지금 그 성과와 함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냉정한 점검과 반성 또한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식과 미술 본래의 활력, 풍요로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기존 미술제도와 대중매체의 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등의 과제가 이미 지적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80년대 종반의 미술운동이 양적 확산의 단계를 넘어서 내용적·질적 심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자임하고 출발한 〈현실과 발언〉 역시 달라진 미술계 상황과 달라지지 않은 현실상황, 혹은 더 무겁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외적 현실 앞에서 회의하고 모색하는 기간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러한 회의와 모색의 한 결과이자 내일을 전망하는 계기로서 마련된 것입니다. 많은 참관과 충언을 기대합니다.

1986년 12월

〈현실과 발언〉

3. 주요 출품작가 및 작품

강요배	「웃음」	종이에 펜, 붓, 먹	50×30cm	1986
	「성토」	종이에 펜, 붓, 먹	30×50cm	1986
	「스승」	종이에 펜, 붓, 먹	50×50cm	1986
	「관중」	종이에 펜, 붓, 먹	30×50cm	1986
	「전략」	종이에 펜, 붓, 먹	30×50cm	1986
	「TV 동공」	종이에 펜, 붓, 먹	15×15cm	1986
김건희	「거리의 동상」	유채, 실크스크린	135×170cm	1986
김정현	「응단폭격」	아크릴릭	100×136cm	1986
	「명석짜기」	아크릴릭	100×136cm	1986
노원희	「가족—1961」	유채	160×130cm	1986
	「겨울」	유채	195×160cm	1986
민정기	「역사의 초상」(연작)	석판		1986
박불똥	「사령관 각하의 부스럼」	포토콜라주		1986
박세형	「도시인상」	수채		1986
박재동	「마포언덕길」	파스텔	20호	1986
	「굴장수」	파스텔	20호	1986
	「산동네의 밤」	파스텔	20호	1986
	「생선가게의 밤」	파스텔	20호	1986
	「호두빵 장수」	파스텔	20호	1986
	「마포 밤시장」	파스텔	20호	1986
	「군고구마 장수」	파스텔	20호	1986
신경호	「창너머」	나무에 채색		1986
안규철	「국기강하」	석고에 채색		1986
안창홍	「얼굴」	종이점토에 채색		1986
임옥상	「배추」	종이부조에 채색	100×70cm	1986
	「토끼와 늑대」	종이부조에 아크릴릭	120×80cm	1986
	「무우」	아크릴릭	210×140cm	1986

〈한반도는 미국을 본다〉 제7회 동인전

1. 전시개요

전시장소: 그림마당 민

전시기간: 1988. 11. 25~12. 1

강 연: 「민족문제와 한미관계란」(이영희)

토 론 회: 「한반도는 미국을 본다——문학과 미술의 시각」

(정지창, 최원식, 성완경, 심광현, 임옥상)

출품작가: 강요배, 김건희, 김용태, 김정현, 노원희, 박재동, 박불뚝, 안창홍, 임옥상, 주재환 등 10명.

찬조출품: 손기환, 송창, 이유남 등 3명

2. 〈한반도는 미국을 본다〉 전시 서문

변화하는 풍경——한반도는 미국을 본다(1)

미국을 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의 일편단심 짝사랑식의 눈먼 사랑놀음에서 벗어나 미국을 대상화해서 보는 새로운 시각이 점차 생겨나고 있다.

이 변화의 의미는 엄청난 것이 아닐 수 없다. 신미양요 이후 한 세기가 지났고 미 점령군의 한국진주 후 거의 반세기의 세월이 지나고 있건만 우리가 미국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가, 해방군으로, 혈맹으로, 은혜로운 어버이의 나라이자 힘센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형님의 나라로 우리의 의식의 풍경 속에서 미국은 늘 자유와 풍요와 인류애의 상징이었고 우리의 국토와 경제와 인권을 지켜주는 존엄하고도 든든한 방벽으로 여겨져왔다.

바로 이 풍경이 흔들리고 있고 엄청난 변모를 겪고 있다. 이 흔들림으로 깨어나고 있는 새로운 풍경이야말로 우리 앞에 놓인 미국이라는 객관적 실체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민족의 생존에 대해 가하는 무게와 그 의미의 발견 그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같은 엄청난 변화가 물론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짝사랑을 깨는 사건들이 지난 40여년 동안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아니 오히려 주의해 보면 무수히 많았는데도 그 의미를 읽지 않았고 또 읽으려 하지 않았을 뿐이다.

사건은 은폐되고 왜곡되고 암장되고 모욕되었으며 또 날조되고 조작되기도 하였다. 최근의 민중적·민족적 시각의 발전은 이러한 사건들의 진상을 복원하고 그 의미를 재발견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진전이 오직 주체적 투쟁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올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대구 10월항쟁이나 제주 4·3항쟁 등 미군정 기간의 민중항쟁이나 그 이후의 여러 반미투쟁사건을 일단 접어두고 80년대의 것들만 보아도 80년의 광주, 82년 부산, 85년의 서울 등 미문화원의 방화와 점거농성 그리고 86년의 농축산물수입개방반대투쟁과 반전반핵·미제용병교육반대 대학생분신사건 등 민중의 생존권투쟁과 민족적 자각이 반미투쟁으로 이어졌던 사건들의 수효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반미인식에 결정적 도화선이 된 것은 80년의 광주항쟁과 이에 대한 미국의 책임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광주’를 통해 ‘혈맹이요 후원자로서의 미국’이 과연 ‘누구의 혈맹이요 후원자로서의 미국인가’라는 인식으로 극적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미 항공모함 출동 소식에 대해 “미국이 아마 우리를 도우러 오는가 보다”라는 순진한 생각을 가지기도 했던 광주시민들이 점차 미국의 동의에 기초한 무력진압이 확실해짐에 따라 느낀 배신감과 반미의식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 문제의 쟁점부상을 통해 반미운동은 이후로 하나의 지속적인 축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민족사적, 세계사적 인식의 새로운 변모된 풍경에 마주치게 되었다. 이 풍경의 새로움은 우리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급격하고도 충격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이 충격은 아직도 초보적 단계의 것인지도 모른다. 더 많은 감추어진 역사와 사건 그리고 그것의 재해석, 더 많은 인식의 축적 위에서 발견하게 될 세계질서의 구도와 그 속에서의 우리 자신의 위상의 발견은 이제까지 반민족적 냉전체제와 세계사적 미몽 속에서 잠재워져왔던 우리의 인식의 여러 층위에, 우리 인식의 낡은 풍경 위에 충격으로 겹쳐올 것이 틀림없다. 이 초보적 충격을 이겨내고 인식의 진정한 새로운 지평을 획득하는 일에 수반되는 과제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과거에 대한 올바른 반성과 객관화라 할 것이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새로운 풍경에, 변모한 현실에 압도당할 뿐이다. 미국과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전망하기 위해서 미국에 관련된 우리의 익숙한 풍경을 여러 단계, 다양한 차원에서 재구성, 재음미해 볼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또한 당연한 사실로 모든 사물을 넘겨보았던 우리의 무지의 습관을 실속있게 반성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짝사랑이 우리의 제도와 기억과 사물에 각인해 놓은, 우리의 주변의 일상 환경과 개인사의 풍경 속에 남겨 놓았던 모든 흔적들을 다시 음미하고 조정하고 또 객관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실과 발언〉 동인이 ‘한반도는 미국을 본다(I)’를 통하여 제시하려는 것은 바로 이같은 작업이라고 알고 있다. 아마도 현단계에서 이 그룹이 보여줄 시각작업의 측면은 미국이라는 실재의 보다 본질적인 국면이라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할지 모른다. 본질을 정확히 검출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이 물론이다. 사회과학분야나 문학 쪽에서의 이 방면의 성과가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또 그것에 자극을 받아—미술분야의, 시각전문가의 노력이 여기에 보태져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의 하나로서 앞서 말한 우리 자신 속의 미국이라는 그 낯은 풍경이—현재적 일상의 환경 속에서건 역사의 회고적 자료 속에서건—바로 우리에게 눈으로, 관능으로, 기억으로 익숙해져 있는 바로 그만큼 ‘정서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시각전문가로서, 동시대의 민족사를 사는 지식인의 일원으로서 이에 관련된 자료를 일상 문화의 환경과 역사 속에서 체계적으로 채집하고 회고하고 깨뜨리고, 또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보여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 때문이다. 우리의 의식에서, 우리들 눈의 보는 방식 속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과거의 도상의 주술적 힘들이 올바르게 씻어지지 않는 한, 미래의 진정한 전망도 불확실한 것으로 남을지 모른다. 이런 작업은 〈현실과 발언〉 동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각전문인의 참여를 요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1988. 11.

성 완 경(미술평론가)

3. 주요 출품작가 및 작품

김건희 「허수아비」	아크릴릭, 실크스크린	200×130cm	1988
주재환 「미제검 송가」	혼합재료	6호	1988
노원희 「숫대」	유채	330×110cm	1988
박불똥 「코화카염콜병라」	혼합재료		1988

그외에 다른 작가들의 설치작품과 자료전시가 있었으며 미국을 주제로 한 다수의 구작들도 전시됨.

일기	석고, 지점토	49×49×36cm	1986
국기강하	지점토에 채색		1986
좌경우경	석고에 채색		1986
9시뉴스	석고에 채색		1988

3. 글목록

안규철	대형조각 추세 속의 테라코타	계간미술	1981 봄
안규철	국제전의 다양해진 창구—메일 아트전	계간미술	1983 여름
안규철	입시실기제도 이대로 좋은가	계간미술	1984 봄
안규철	말썽많은 일본의 예술원선거	계간미술	1984 봄
안규철	소시민적 성공과 예술적 태만	계간미술	1984 가을
안규철	‘거룩한 것’으로부터의 해방 —현실과 발언과 나의 만남	현실과 발언	1985. 7
안규철	우리나라 미술잡지기사의 성격과 문제점들	시각과 언어2, 열화당	1985. 10
안규철	기이한 악몽의 서커스	월간미술	1989. 2
안규철	소련의 비공식 미술가들	월간미술	1989. 2
안규철	다양하고 왕성한 발표무대	월간미술	1989. 3
안규철	기관총과 미키마우스	월간미술	1989. 5
안규철	에곤 쉴레와 빈의 화가들	월간미술	1989. 7
안규철	에드워드 킨홀츠 부부의 80년대 작품전	월간미술	1989. 8
안규철	푸른색, 먼 곳의 빛깔	월간미술	1990. 4
안규철	말과 그림은 하나다	월간미술	1990. 8

안창홍 安昌鴻

1. 인적사항 및 활동경력

1952 경남 밀양 출생

- 1973 부산 동아고등학교 졸업
- 1976 〈안창홍, 정복수 2인전〉, 부산 현대화랑
- 1977~1981 〈POINT 현대미술회전〉, 부산, 울산, 서울
- 1977~1979 〈기류전〉, 부산
- 1978 〈국제화랑 개관 기념전〉, 부산 국제화랑
제2회 〈부산 현대미술제〉, 부산 시민회관
제4회 〈대구 현대미술제〉, 대구 시민회관
- 1979~1981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서울, 춘천, 대구, 제주
〈36인의 방법전〉, 미술회관
- 1980 개인전, 공간화랑, 부산 청년작가회관
〈현대미술 21인의 초대전〉, 부산 국제화랑
동방미술회관 기념전, 부산 동방미술관
〈18인의 회화전〉, 청년작가회전
전시화랑 기획 15인 초대전, 전시화랑
〈회화 15인전〉, 춘천 어린이 회관
- 1981 〈부산 청년비엔날레〉, 부산 공간화랑
- 1982 현대화랑기획 〈상황과 의식 회화전〉, 부산 현대화랑
〈한국 현대미술 80년대 조망전〉, 미술회관
〈김응기, 안창홍 2인전〉, 부산 맥화랑
〈인간 11인전〉, 관훈미술관
- 1983 〈시대정신전〉, 제3미술관
〈현실과 발언 4회전〉
〈서울의 봄전〉, 서울미술관
〈젊은 의식전〉, 관훈미술관
- 1984 개인전, 부산 고려미술관
〈삶의 미술전〉, 아람미술관
〈'83 문제작가전〉, 서울미술관
〈인간전〉, 미술회관
〈시대정신전〉, 부산, 마산, 서울
- 1985 〈어떤 정신들전〉, 한강미술관
서울미술관 개관 4주년 기념전, 서울 미술관

- 〈인간전〉, 전화랑
- 1986 개인전, 한강미술관, 부산 시인화랑
 〈우리시대의 초상전〉, 한강미술관
 〈인간전〉, 동덕미술관
 〈현실과 발언 6회전〉
- 1987 개인전 〈새와 사람 이야기〉, 부산 갤러리 누보
 〈반고문전〉, 그림마당 민
- 1988 〈80 한국미술의 위상전〉, 한강미술관
 〈한반도는 미국을 본다〉, 현실과 발언 7회전
- 1989 개인전, 전주 온다라미술관
 〈카뉴 국제회화제〉, 프랑스
 〈80년대의 형상미술전〉, 금호미술관
- 1983~현재 현실과 발언 회원

2. 작품목록

절름발이	유채	65.1×80.3cm	1972
자화상	유채	72.7×60.6cm	1973
난파선	유채, 크레용	72.7×60.6cm	1974
난파선	유채	72.7×60.6cm	1975
아무도 없는 달밤에	종이에 유채	80.3×100cm	1976
자화상	유채	31.8×40.9cm	1974
절규	종이에 수채	40.2×52.2cm	1975
놀란 아이들	유채	72.7×100cm	1974
싸우는 사람들	유채	100×72.7cm	1974
병실	유채	100×80.3cm	1976
운명의 기슭	유채	100×80.31cm	1976
운명의 기슭	종이에 색연필	33.4×24.2cm	1982
인간이후	종이에 색연필		1979
인간이후	종이에 색연필		1980
루소이후	신문지에 콜라주, 유채	33.4×24.2cm	1978
인간이후	종이에 콜라주, 유채	182.5×95cm	1979

인간이후	종이에 콜라쥬, 유채		1979
인간이후	종이에 콜라쥬, 유채		1979
인간이후	종이에 콜라쥬, 유채		1979
인간이후	종이에 콜라쥬, 유채	109.5×79.5cm	1979
인간이후	종이에 콜라쥬, 유채	109.5×79.5cm	1979
인간이후	종이에 콜라쥬, 유채	109.5×79.5cm	1979
가족사진	종이에 유채	194×115cm	1980
가족사진	종이에 연필	106×133cm	1980
가족사진	종이에 유채	65×107cm	1982
가족사진	종이에 유채	76×115cm	1982
가족사진	종이에 색연필	194×115cm	1981
가족사진	종이에 유채	114×145cm	1982
그날의 기억	종이에 유채, 수성페인트	171×114.5cm	1980
아무도 없는 달밤에	종이에 콜라쥬, 파스텔	55×42cm	1983
아무도 없는 달밤에	종이에 콜라쥬, 파스텔	47.5×37cm	1983
아무도 없는 달밤에	종이에 콜라쥬, 파스텔	47.5×37cm	1983
아무도 없는 달밤에	종이에 콜라쥬, 파스텔	47.5×37cm	1983
자화상	종이에 색연필		1980
위험한 놀이	종이에 색연필	109.5×54cm	1983
묵시	종이에 색연필, 파스텔	109.5×77.5cm	1983
어떤휴식 ₁	종이에 색연필, 잉크	109.5×79.5cm	1985
어떤휴식 ₂	종이에 색연필, 잉크	109.5×79.5cm	1985
위험한 놀이	종이에 색연필	109.5×79.5cm	1983
1983의 한국 호랑이	종이에 색연필	109.5×79.5cm	1983
뽀내는 지배자	종이에 색연필	109.5×79.5cm	1987
용사	종이에 파슈	79.5×109.5cm	1985
절규	종이에 색연필, 잉크	109.5×79.5cm	1985
위험한 놀이	종이에 색연필, 수채화물감	109.5×79.5cm	1984
전쟁—6.25 그리고 오늘	종이에 색연필	109.5×79.5cm	1983
위험한 놀이	종이에 색연필, 잉크	109.5×79.5cm	1985
묵시	종이에 색연필	79.5×109.5cm	1984
화실풍경	종이에 색연필, 콘테, 파스텔	109.5×79.5cm	1984

들의 비가	종이에 과슈, 잉크	109.5×79.5cm	1985
위험한 놀이	종이에 색연필, 파스텔	143×106cm	1984
들판에서	종이에 색연필, 잉크	109.5×79.5cm	1985
80년도 인물도	종이에 아크릴물감, 색연필	215×130cm	1982
위험한 놀이	종이에 색연필, 파스텔	144.5×107cm	1984
불타는 새	종이에 과슈	109.5×79.5cm	1986
새	종이에 아크릴물감, 잉크	183×121cm	1985
새	종이에 색연필	109.5×79.5cm	1985
새	종이에 색연필, 잉크	109.5×79.5cm	1985
새	종이에 색연필, 잉크	109.5×79.5cm	1985
새	종이에 과슈, 잉크	109.5×79.5cm	1985
새	합판에 유채	210×224cm	1985
손	종이, 가시나무	40×10×10cm	1986
새	천에 아크릴릭	130.3×97.01cm	1987
내 피로 너희를 회개케하리라	종이, 가시나무, 유채	30×40×20cm	1986
얼굴	종이, 가시나무, 유채	30×40×20cm	1986
얼굴	종이, 가시나무, 유채	30×40×20cm	1986
새	합판, 철사, 양철, 못, 유채		1986
얼굴들	종이, 채색		1986
어떤 죽음	종이에 연필	109.5×55×8cm	1986
시인의 잠	종이에 색연필	109.5×79.5cm	1985
덧	종이에 아크릴물감	109.5×79.5cm	1987
푸른빛 면류관	종이에 아크릴물감	53×78cm	1987
얼굴	종이에 연필	53×78cm	1987
전시장 풍경			1987
용사	장난감, 붓, 못, 유채		1987
공격적인 얼굴	나무에 유채	26.5×36.5cm	1986
도시의 뒷골목	천에 유채	50×60.6cm	1987
노파	천에 유채	50×60cm	1985
얼굴	천에 아크릴릭	50×60.4cm	1985
끝없는 탈출	종이에 색연필	109.5×79.5cm	1989
추락	종이에 색연필	109.5×79.5cm	1983

3. 글목록

김해성	허구의 현실에 대한 고발	'83 문제작가 작품전	1984. 1
강선학	삶에 대한 물음과 고독 —안창홍의 가족사진		
성완경	안창홍전	계간미술	1984 여름
강선학	사회의식의 회화적 변용 —안창홍의 작품세계	‘안창홍 그림모음’	1986
성완경	서양화가 안창홍	화랑회보 33	1987
성완경	안창홍, 또는 아름다움의 덧	안창홍 4회 개인전	1987. 10
채충석	안창홍—인간의 본질회복을 꿈꾸는 도화술사	객석	1988. 8
성완경	독립생활자의 초상	안창홍 초대전	1989. 6
정진국	무학유능 유학무능	월간미술	1989. 7
박신의	환각과 예감에의 충동—안창홍	가나아트	1990.5/6

오윤 吳潤

1. 인적사항 및 활동경력

1946	부산 출생
197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1973	전돌공장 경영
1980~1985	선화예술고등학교, 서대문 미술학원 강사
1986	작고
1969	〈현실동인전〉, 무산
1980	〈현실과 발언 창립전〉
1981	〈새로운 구상화가 II인전〉
	〈현대미술 워크샵 기획전〉
	〈도시와 시각전〉, 현실과 발언 2회전